백수 선생의 기에 대한 설명

기란 무엇인가?

일반인들에게 기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쉽게 말한다. 우리말 낱말 속에 기라는 말이 무척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서 물어보면 결국 미궁에 빠진다. 개념도 불분명하니 주로 기의 외연을 가지고 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어떤 사물을 안다고 한다면 개념상의 외연 못지않게 그 내포를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대상의 본질적 성질과 다른 대상과의 관계 따위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통 철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어떨까? 기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더라도, 조금 깊이 들어가면 본인이 전공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쉽게 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학파마다 시대마다 사용하는 개념의 차이 때문이다. 가령 주희가 사용한 음양과 오행으로 최한기(崔漢綺, 1803~1877)의 기를 설명하면 전혀 맞지 않고, 같은 기 철학자인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의 기와 임성주(任聖周, 1711~1788)의 기를 최한기의 기와 같다고 말할 수도 없다. 더구나 17~18세기 중국에서 예수회 선교사들이 저술한 책 속의 기는 우리의 기와 당연히 다르다.

어디 그뿐인가? 주희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거기서 음양의 기를 자주 말하는데, 벌써 음양이라는 말이 나왔으므로 기가 둘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하나라고 하고, 오행이라는 말도 있으므로 다섯이라고 한다. 어느 것이 맞을까?

이런 의문은 주희 성리학을 공부한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이재의 문인인 백수(白水) 양응수(楊應秀, 1700~1767)도 그런 모습이 답답했던지 성리학 내부의 기에 대한 학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 이 글은 『백수문집(白水文集)』의 「기설(氣說)」을 해설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소개하려고 한다. 그래서 독자들의 주희 성리학의 기에 대한 이해가 뚜렷해질 것으로 본다.

양응수의 생애와 학문

이전 글 이재의 문인 소개에서 양응수에 대한 간단히 언급했지만, 다시 소개하면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계달(季達), 호는 백수(白水)이고 전북 순창 출신이다. 벼슬에 뜻을 버려 관직이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만 진력했다. 저서에 『백수문집(白水文集)』이 있다. 이재의 종제(從弟) 이유(李維)가 정리한 「종유록(從遊錄)」을 보면 교유한 인사가 매우 많다. 특히 그의 「행장」에 "주자 문하에서 성리(性理)에 대해서는 북계 진순(陳淳; 1159~1223)이 으뜸이라고 하는데 이재 문하에서는 양응수가 으뜸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는 그 사실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평생 학문에만 전력한 점을 고려한다면, 그의 성리학에 깊은 조예를 짐작할 수 있다. 만년에는 박성원(朴聖源)·김원행(金元行)·송명흠(宋明欽) 등 당시 석학들과 교유하면서 후진양성에 힘썼다고 전한다.

음양의 유행과 대대

「기설」에는 먼저 질문부터 등장한다. 그 내용은 이렇다. "『주자어류』에서 말하기를 '음양은 단지 하나의 기이니, 양기가 물러남이 곧 음기의 생김이니, 양기가 물러나고 나서 또 별도로 하나의 음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자께서 음양을 하나의 기로 본 것이 이같이 분명한데, 선생께서 매양 두 기의 설로 여기시니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양응수(이하 저자로 약칭)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것은 바로 이른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것이다. 『주자어류』에는 또 이런 말이 있다. ‘이치는 하나일 뿐이지만 기는 둘이 아님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만 주자의 말이 아닌가? 하지만 그대가 인용한 주자의 말과 내가 인용한 주자의 말이 이처럼 상반된다고 해서 주자의 말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게 아니다. 다만 이 기에는 유행(流行)을 말한 것이 있고 대대(待對)로 말한 게 있는데, 그대가 인용한 내용은 유행으로 말한 것이고 내가 인용한 내용은 대대로 말한 것이다.”

자, 여기서 음양의 기가 하나인지 둘인지 하나로 결정할 수 없고, 보는 관점에 따라 하나일 수도 둘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유행이란 말 그대로 흘러 다니는 것인데, 자연에서 기상변화가 일어나고 밤이 되고 낮이 되는 일이 그것으로, 모두 하나의 기가 그렇게 변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기는 분명 하나이다. 현대 과학에서 말하면 만물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하나로 대표되는 물질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대대라는 말은 사물이 성립하려면 필요로 하는 서로 상대되는 짝을 일컫는다. 가령 남자와 여자, 있음과 없음을 뜻하는 유무(有無)나 높고 낮음을 뜻하는 상하(上下)나 길고 짧음을 뜻하는 장단(長短) 따위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보완하거나 의지해야 성립한다. 그래서 대대는 서로 보완하고 의지하는 관계이다. 한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음양도 음이 있어야 양을 설명할 수 있고 양이 있어야 음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음양의 기는 존재 상에서는 하나이지만, 존재의 양태랄까 성질상에서 본다면 음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그 근거를 주자의 말에서 가져온다. 곧 “음양을 하나로 봐도 되고 둘로 봐도 된다. 둘로 보면 음과 양으로 나뉘어 양의(兩儀: 음양을 달리 이른 말)가 서고, 하나로 본다면 다만 사라지고 자라나는 것이다. 음양을 대대로 볼 때는 가령 부부·남녀·동서·남북 따위가 그것이다. 유행을 따라 뒤이어 섞이는 것을 볼 때는 가령 밤과 낮, 봄·여름·가을·겨울, 상하현·보름·그믐·초하루가 그것인데, 하나의 사이에 하나가 굴러가는 것이다. 또 본체는 하늘과 땅이 있고 난 뒤에 성립하고, 작용은 하늘과 땅보다 먼저 있는데, 대대는 본체이고 유행은 작용으로 본체는 고요하고 작용은 움직인다.”라고 하였다. 마지막 문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거꾸로 이해하면 쉬울 듯하다. 곧 기의 유행이 하늘과 땅보다 먼저이고, 개념으로 사용하는 대대는 천지가 확립된 이후의 일로 보인다. 그러니 유행은 동적인 운동일 수밖에 없고, 대대는 개념상 또는 형이상의 문제이므로 정적일 수밖에 없다.

기의 동정 이후의 음양

기를 보는 관점으로 유행과 대대 외에 움직임과 고요함 또는 운동과 정지를 뜻하는 동정(動靜)이 있다. 이 역시 하나의 기이지만 동정에 따라 둘로 나눠 보는 방식이다. 여기서 동정이란 말의 의미는 이미 「태극도설」에서 말한 것으로 태극에서 만물까지 우주와 만물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데서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태극과 리을 제외하고 기의 측면에서만 말했다.

저자의 설명은 기의 동정 이후를 네 가지로 나눠 본다.

첫째, “하늘과 땅 사이에는 본래 하나의 기가 유행하지만, 거기에 동정이 있다. 그래서 그 유행하는 전체를 말하면 다만 하늘로서 포함하지 않음이 없지만, 그것이 동과 정으로 나눠진 뒤에 음양과 강유(剛柔: 剛은 하늘, 柔는 땅을 상징한다)의 구별이 생긴다. 이것은 기는 본래 하나이지만 동정에 따라 나뉘어 두 기가 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행하는 하나의 기에서 운동할 때와 고요할 때를 각각 양기와 음기로 나눠 본 경우이다.

둘째, “하늘과 땅 사이에는 하나의 기뿐이지만, 나뉘어 둘이 되면 음양이 되어 오행(五行:

水火木金土의 다섯 가지 기운 또는 질)이 만든 만물의 처음과 끝이 여기서 주관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은 하나의 기가 만물을 생성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음양의 두 기로 나눠지고, 그런 뒤에 바야흐로 변화하고 오행을 생성할 수 있어, 기가 모이고 흩어져 만물의 처음과 끝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일기 → 음양 → 오행 → 만물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가 만물을 생성하는 과정에 음양의 두 기로 분화할 수밖에 없음을 말한 것이다.

셋째, "하늘과 땅의 기가 교합(交合)하면 사람을 이루는데, 이때 하늘의 기는 혼(魂)이 되고 땅의 정(精: 생명의 원천이 되는 물질)은 백(魄)이 되었다가, 장차 죽음에 이르러 따듯한 기는 위로 날아가 이른바 '혼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며, 몸은 차츰 식어 이른바 '백이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혼이 하늘로 돌아가고 백이 땅으로 내려가면 사람은 죽는다. 이것이 사람의 삶과 죽음이 단지 음양의 두 기가 합하고 흩어지는 일이다."라고 하여, 사람의 삶과 죽음의 측면에서 음양의 두 기로 설명하였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정신적 요소를 양기, 육체적 요소를 음기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고, 그 근원은 각각 하늘과 땅의 요소에서 온 것으로 본다.

넷째, "하늘과 땅 사이에는 만물이 찬란하게 놓여 있는데, 모두 음기가 양기에 붙어 있는 것으로서 그 아름다운 외관상의 모습이다."라고 하여, 사물에는 음양의 기가 공존하고 있음을 말했다. 사실 주역의 괘를 보아도 그렇다. 불을 상징하는 ☲은 양인 ━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가운데 음효인 ╍이 들어 있고, 물을 상징하는 ☵은 음인 ╍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양인 ━이 들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양 속에 음이 있고 음속에 양이 있다고 한다. 가령 남자인데 여성 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을 양 속에 음이 있다고 말하고, 여자인데 외모나 성격이 남성 같으면 음 속에 양이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따져보면 어떤 사물이든지 음양의 요소가 없는 것이 없다.

만물의 생성과 소멸

이제 저자는 앞에서 열거한 몇 가지를 종합하여 설명한다. 곧 "기의 본원이 비록 하나이지만, 저절로 동정이 있고 난 뒤에 곧 음양 두 기를 이룬다. 이 두 기가 교합하여 오행과 만물을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무릇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고 형체나 상이 있는 물건은 두 기가 묘하게 합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여, 만물이 생성되려면 반드시 음양의 두 기의 작용이 필요하다고 결론 맺었다.

그러니까 마치 동물의 암수가 교미하여 자손을 낳듯 하늘과 땅 곧 양기와 음이 교합하여 만물을 낳는 과정을 그렇게 표현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물의 암컷과 수컷이 짝으로 필요하듯, 양기와 음기가 논리상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이것을 더 이해시키기 위해 인간을 비유로 설명하였다.

"인간에게 적용하여 말하면 뼈와 살이 합하여 육체가 되는데, 뼈는 양이고 살은 음이다. 또 기와 피가 합하여 영위(榮衛: 혈액과 생기를 뜻하는 한의학 용어)가 되는데, 기는 양이고 피는 음이다. 그리고 또 혼(魂)과 백(魄)이 합하여 마음이 되는데, 혼은 양의 정신이고 백은 음의 정신이다. 이 마음의 겉과 속 정밀함과 거침이 모두 두 기의 합침이 아님이 없는데, 혼백이란 두 기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혼과 백이 서로 합쳐져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앎이 있으나, 혼과 백이 서로 떨어지면 죽게 되고 앎도 없다."

결국 인간의 육체와 정신도 음기와 양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을 일반화한다면 모든 사물에는 음의 요소와 양의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다. 좀 더 천착하여 이 음양을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로 나누어 적용한다면, 모든 사물에는 이 양자가 공존하고 있으므로, 백 퍼센트 완전히 좋다거나 백 퍼센트 완전히 나쁜 것은 절대 없다. 국가나 기업에서

어떤 정책이나 전략을 펼칠 때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일도 부정적 결과가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니 겸손하게 그 점을 인식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이런 음양론의 교훈이 아닐지.

전통의 사유 구조와 현대 과학

이제 그 글을 마무리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 이치는 매우 분명하다. 참으로 이른바 '귀신에게 물어봐도 의심이 없고, 백 세의 성인을 기다려도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속된 선비가 알지 못하고, 몹시 놀라고 마음속으로 괴이하게 여겨 두 기의 학설이 있다는 점을 쳐서 배척하려고 함은 주자가 다만 유행을 말한 한 변두리만 모아서 음양이 하나의 기라는 증거로만 삼아, 주자의 많은 두 기의 설명이 이처럼 분명함을 살피지 않았으니, 얼마나 고루한가?"

이 마지막 글을 미루어 짐작하면 맨 앞의 누가 질문한 데 대한 강한 비판의식이 묻어있다. 그런데 혹자의 질문은 주희가 기를 음양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본 것을 모르고 질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본 상식이니까. 이것은 아마도 질문자가 기에 대한 외부의 도전을 받아 질문한 내용으로 보인다.

사실 주희가 말한 음양을 유행과 대대로 나눈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존재와 사유 구조를 나누어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행은 존재에 가깝고 대대는 인식의 틀로서 사유 구조에 가깝다.

만약 질문자가 존재론적 질문에서 하나의 기라고 말했다면 타당하다. 이는 조선 후기 서학의 영향을 받은 홍대용이나 최한기의 경우 과학적 대상으로서 기를 다루면서 음양 개념을 버린 일과 같은 맥락이다. 굳이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존재론에서는 일기장존(一氣長存)이나 일기취산(一氣聚散)으로 다루지, '음양 장존'이나 '음양 취산'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담헌은 자연 속의 음양은 실체가 없다고 했다. 흔히 양기와 음기를 따뜻하고 찬 기운으로 보고, 이를 온도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 기준은 정확하게 몇 도인가? 조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니까 확정할 수 없다. 다만 그 물질을 성질별로 분류할 때 음양이나 오행으로, 더 나아가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음양 개념은 사유나 인식의 틀로서 과학보다 철학이나 문화에 더 어울리는 개념이다.

우리가 전통의 음양을 이해할 때 이런 점을 알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싸잡아 도깨비방망이처럼 아무 데나 적용하면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행이냐, 대대냐, 동정이냐를 따져서 보는 양응수의 「기론」은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질문자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좀 아쉽다.